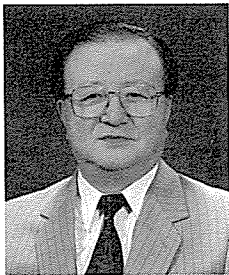


1960년대에 와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조치로 인하여 잡곡을 위주로 한 식품이 많이 개발되고 상품화되면서 식품공업이 차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1965년 경에는 식생활의 개선이 크게 권장되었고 식량적 식품의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많은 대학에 식품공학과가 창설되고 연구인력이 점차 늘어났다.

회원 1천6백여명 ... 왕성한 학술활동 한국식품과학회

60년대 들어 식품공업이 활기를 띠고 식생활 개선운동과 때를 같이하여 68년 5월 2백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한국식품과학회가 결성했다. 정회원만 1천6백명이 넘는 식품과학회는 학술발표와 기술세미나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10월 국제식량이공학회 아시아지역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鄭 鎬 權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 건국대 미생물학과 교수)

정부연구기관으로 공업연구소의 식품과가 고작이던 것이 국방과학연구원이 확대되었고 KIST와 농어촌개발공사가 탄생되었다. 식품에 관련된 연구인력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기술이나 연구정보토론의 장(場)은 한국농화학회가 있을 정도였다.

산업계에서도 학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때 1968년 5월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갖고자 대학에서 김창식 교수(동국대), 하덕모교수(동국대), 김

형수교수(연대), 김상순교수(숙대) 등과 연구소 계통에서 한용석박사(공연), 박계인박사(공연), 권태완박사(KIST), 그리고 업계에서는 최응상사장(농어촌개발공사), 전중윤사장(삼양), 박병규사장(해태) 등 여러분이 견인차 역할을 하여 처음에는 불과 2백여명 정도의 동지가 공업연구소에 모여 학회를 결성하였다.

기업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는 뜻으로 처음 학회 명칭을 식품과학협회로 하였으며 회장으로는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이던 전 서울대교수 최응상박사, 부회장으로는 전중윤사장과 김창식교수, 간사장으로 한용석박사 그리고 총무는 김형수교수(연대)가 맡았으며 1969년 학회지 발간에 즈음하여 학회의 명칭을 한국식품과학회로 개칭하였다.

해마다 2~3회 워크숍 열어

1969년에 창간된 「한국식품과학회지」는 해를 거듭하면서 연 2회, 3회, 4회씩 중간되다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격월간으로 연 6회 발간되고 있으며 1992년에 창간된 영문학술지 「Foods and Biotechnology」는 현재 계간으로 연 4회 발간되고 있다. 따라서 국·영문학술지를 합하여 연 10회가 발간되고 있으며, 두 학술지를 통해 연간 2백 20여편의 국내외 연구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역시 계간으로 학회 및 회원들의 소식과 산업계를 위한 기술정보를 전해주는 「식품과학과 산업」이 연 4회 발간되고 있어 회원들에게 정보전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회지의 종류도 늘어나고 게재논문의 수도 증가하는 것은 식품과학연구인력의 절대적 증가는 물론

개개인력의 연구활동의 활성화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연구논문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에 아주 가까운 장래에 연간 12회의 학술지 발간이 기대된다.

또 다른 학술활동으로는 회원들에게 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재교육할 목적으로 매년 2~3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여름에는 식품산업과 포장기술(식품공학분과위원회), 식품품질관리를 위한 관능검사(식품관능검사분과위원회)와 식품향료의 제조기술과 응용(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의 3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총 1백여명이 수강하였다.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증진시키고 연구업적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1972년부터 학회상(공로상, 학술상, 기술상, 학술진보상, 기술진보상, 지정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0여명의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사가 수상하였으며 최근에는 뜻있는 회원이 기금(8천만원)을 기부하여 앞으로는 이 기금의 과실을 이용하여 식품화학분야의 연구에 우수한 업적을 이룬 회원에게 시상할 수 있게 되어 본 학회 발전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리라 확신한다.

학회는 또 해외의 식품관련학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수집을 위하여 국제식량이공학회에 2명의 대표를 파견하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의 국내유치활동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 학회는 몇년 전 소위 우지(牛脂)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우지를 가지고 제조한 식품은 안전하기 때문에 식



▲ 1995년 국제녹차심포지움에서 정호권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용으로 하여도 좋다는 학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과도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공헌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식품공전을 개정할 때에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하므로써 본 학회의 단체회원사를 포함하는 식품산업체의 권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유능한 회원들이 현재 보사부, 농림수산부, 국제청, 환경처 및 상공자원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정책입안 등에 관여하고 있다.

연간예산 3억5천여만원

본 학회의 조직은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평의원회, 회부지원을 위한 10개의 각종 위원회(국·영문학술지 편집위원회, 식품문헌초록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 식품과학용어

위원회, 식품과학교과과정위원회, 식품법규 및 행정연구위원회, 장기발전기획위원회, 식품산업발전위원회, 수상후보자선정위원회), 6개의 학술분과위원회(식품공학분과위원회, 유지분과위원회, 식품위생분과위원회, 관능검사분과위원회, 식품분석분과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와 효과적인 학회업무수행을 위한 간사회(간사장, 총무간사, 학술간사, 재무간사, 사업간사, 편집간사 3인)를 두고 있으며 영남지부, 호남지부와 미주지부가 지역 내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임원으로는 회장, 부회장 4인(학계 및 산업계 각 2인)과 감사 2인으로 되어 있다.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도서관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성된다. 명예회원은 회장을 역임하고 공직에서 퇴임했을 때 추대하고, 특별회원은 산업계부회장이 임기만료후 활동을 중지하였을 때 추대될 수 있으며, 단체회원은 식품산업체가,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의 학회지를 구독하는 대학

의 도서관, 그리고 학부학생들이 학생회원이 된다. 현재 정회원은 1천6백11명(95명의 종신회원 포함), 명예회원 4명, 특별회원 2명, 단체회원 75개사와 97개의 도서관회원이 있고 학생회원 38명이 가입해 있다. 현재 본 학회에서는 사무장 1인 그리고 사무원 1인이 회장단과 간사진의 학회업무수행을 돕고 있다. 본 학회의 1994년도 결산액은 3억5천여만원(일반회계 1억3천만원과 특별회계 2억2천만원)에 이르렀다.

올 가을 국제학술대회 주관

학회의 발전방향 및 발전계획은 장기발전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영문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첫 단계로 SCI등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의 촉진을 위해 학술연구기금의 연차적인 적립을 하고 있다.

기타 본 학회의 단기 사업계획으로는 1996년에는 국제식량공학회 아시아 지역 학술대회를 본 학회 주관으로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키로 결정되어 준비 및 진행위원들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으며, 이 학술대회는 최근 식품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기능성식품(Non-Nutritive Health Factors for Future Foods)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4년마다 치루어지는 국제식량공학회의 11차 정기학술발표회(2003년)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학술대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학술대회 유치를 위한 제안서(proposal)를 제출한 단계이다. 이 학술발표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되었을 때 1천개 정도의 논문이 발표될 것이고 전세계 여러나라의 식품학자 1천5백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나라의 식품학 발전상태를 유감없이 발휘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2003년 기준으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관련기관 및 부서와 식품관련단체회원의 뜨거운 후원이 있어 큰 어

려움은 없으리라 본다. 규모가 큰 예산만큼 학술대회의 규모도 커서 식품성분, 식품재료 및 제품, 식품영양과 위생, 식품공학 및 자동화, 익스투루전 및 고압가공기술, 식품물리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생물공학, 식품저장 및 포장, 식품품질관리, 식품관능평가, 식품관련법규, 낙농제품, 쌀을 비롯한 동양권의 식품, 다이어트 음식, 기능성 식품 등의 분야를 47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국내외 저명식품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펼 것이다.

1996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학회의 업무전산화를 이룰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학회에서 발간한 국·영문학술지 및 한국식품문헌총람 전권에 대한 CD-ROM 타이틀의 제작이 1996년 1월에 완료되면 색인에 의한 검색, 저자명에 따른 검색, 연도별 검색 등 문헌 검색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㉞

● 해외 단신

차세대 아시아의 호랑이는 말레이시아

어느 나라가 다음 세대의 아시아 호랑이가 될 것인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새로운 분석에서 그 나라는 말레이시아라고 발표했다. '아시아의 새로운 첨단기술 경쟁자'라는 보고서에서 NSF는 말레이시아가

홍콩,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대만의 새로 공업화된 국가(NIE)와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떠오르는 아시아 경제권(EAE) 사이의 격차를 뛰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로렌스 리우수가 쓴 이 보고서는 특히 경향, 미국과의 첨단기술 교류, 외국 투자 개방도, 기술의 인프라구조 등을 포함한 여러 범주를 고려해서 8개 호랑이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말레이시아는 고급기술 제품의 증가와 새로운 첨단기술 제조시설에 대한 거액의 해외자본 유치 등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처지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다. 그들은 더 많은 미국의 첨단제품 등과 노하우를 구매하고는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기술적인 경쟁을 키우려는 자질과 열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